

수능 국어 현대소설 만점을 위해서는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 힘이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현대소설 시험은 객관식인 만큼 '해석'은 출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읽고 선지를 통해 제시된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현대소설 트레이닝』은 4주(28일) 동안 현대소설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소설 지문 독해 시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체화하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2 학력평가 및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엄선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능 국어 현대소설 만점을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으며, **4주 완성 계획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해설 책의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을 채워 가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완성 계획표

일	주제	문제	해설
01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서문 '전통'	P108	P104
02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서문 '현대성'	P108	P108
03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전통'	P108	P113
04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현대성'	P108	P118
05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22
06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26
07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30
08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34
09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38
10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42
11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46
12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50
13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54
14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58
15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62
16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66
17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70
18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74
19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78
20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82
21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86
22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90
23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94
24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198
25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202
26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206
27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210
28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 김유정 '무녀상' 이야기	P108	P214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현대소설 트레이닝』으로
4주 후, 달라진 현대소설 지문 독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확인해 보세요!

4주 완성 계획표

DAY	수록 작가 및 작품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1 주차	01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허준, 「잔등」	P.008	P.004
	02 김원일, 「노을」 · 오영수, 「화산댁이」	P.012	P.008
	03 임철우, 「아버지의 땅」 · 염상섭, 「임종」	P.016	P.013
	04 현길연, 「신열」 · 채만식, 「미스터 방」	P.020	P.018
	05 김유정, 「만무방」 ·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P.024	P.022
	06 윤홍길, 「무제」 · 전광용, 「꺼삐딴 리」	P.028	P.028
	07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이태준, 「복덕방」	P.032	P.033
2 주차	01 이문구, 「관촌수필」 · 김정환, 「어떤 유서」	P.038	P.040
	02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김성한, 「김가성론」	P.046	P.046
	03 김정환, 「산거족」 · 최일남, 「흐르는 북」	P.054	P.052
	04 이문열, 「금시조」 · 은희경, 「새의 선물」	P.060	P.058
	05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P.068	P.064
	06 임철우, 「사평역」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P.074	P.070
	07 김원일, 「마당깊은 집」 · 김소진, 「쥐잡기」	P.080	P.076
3 주차	01 김소진, 「자전거 도둑」 · 현진건, 「무영탑」	P.088	P.084
	02 오정희, 「유년의 뜰」 · 염상섭, 「만세전」	P.096	P.091
	03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염상섭, 「삼대」	P.104	P.099
	04 이태준, 「돌다리」 · 현기영, 「순이 삼촌」	P.112	P.107
	05 임철우, 「눈이 오면」 · 최윤, 「회색 눈사람」	P.120	P.115
	06 이청준, 「소문의 벽」 · 이문구, 「유자소전」	P.128	P.123
	07 박태원, 「천변풍경」 · 이청준, 「잔인한 도시」	P.136	P.131
4 주차	01 오상원, 「모반」 · 오정희, 「옛우물」	P.146	P.142
	02 김동리, 「역마」 · 최인훈, 「광장」	P.154	P.150
	03 이호철, 「나상」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P.162	P.158
	04 이상, 「날개」 · 이청준, 「시간의 문」	P.170	P.166
	05 양귀자, 「밤의 일기」 ·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 - 병동에서」	P.176	P.173
	06 한수산, 「타인의 얼굴」 · 양귀자, 「방울새」	P.184	P.181
	07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김승욱, 「역사」	P.192	P.189

2 / 3 / 4 주차

선지 판단의 원리

2~4주차에서는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거야.

2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연습을 끝내고 옮겨간 '막걸리 집'에서 민 노인은 '외외의 _____ 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_____ 하다고 느낌

선지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

② **작품** '수십 명의 _____ 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_____ 에서 '민 노인의 복은 요긴한 대목에서 동등 울림

선지 '총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 이다. ○ ×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마찬가지로 ① - ② - ③ - ④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풀 후,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 문제의 선지를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는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야.

3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등장인물의 _____ 나 사건을 설명함. 독자는 서술자의 _____ 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됨

선지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

작품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_____ 와 자존심은 각별 했다.'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을 배워볼 거야.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 돼.

4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장면 직접 끊기 + 고난도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p>장면 끊기 01 '나는 아내의 _____ 에 익숙해지다가, _____ 에서 출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음</p> <p>장면 끊기 02 '나는 집을 나와 강성택을 찾아가지만 _____ 이 일어 어쩔 줄 몰라 함</p> <p>장면 끊기 03 '나는 몇 시간 후 미쓰코시 옥상에서 _____ 를 회고하면서 ' _____ '로 대표되는 세계와의 불화에 체념함</p> <p>장면 끊기 04 '나는 정오 사이렌을 통해 무의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경호의 현란함을 바라보며 _____</p>	+	<p>왕정 (이하기)</p> <p>안배와의 갈등 후 거리를 떠돌던 '나'가 '미쓰코시 옥상'에 올라 지나 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돌아 다니다가 '미쓰코시 옥상'에 올라왔으며, 이곳에서 자신의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면서 '회택의 거리의 '피곤한 생활'을 바라보다가 '나서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매고 있다.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 사이렌'이므로 '미쓰코시 옥상'이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p>
---	---	---

4주차에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직접 장면을 나누어 보자. 지문을 다 읽은 뒤에는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참고해서 자신의 장면끊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장면별 내용을 요약하면 돼.

4주차의 1번 문제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로 구성했어. 특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였거나 헛갈리는 요소가 포함된 선지의 경우, 해설 책의 '함정 피하기'에서 문제 풀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학습하면 돼.

1주차 학습 안내

소설 읽기와 소설 지문 읽기는 달라. 소설 지문은 작가가 창작한 그대로가 아닌, 출제자가 선택적으로 편집한 부분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해. 출제자의 의도대로 소설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다른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고 둘째, 장면을 끊어 가며 읽어야 해.

소설은 주로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표시를 하며 읽는 게 좋아. 또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 갈등 관계 등이 두드러진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 이런 부분은 지문 중간중간 ‘사고의 흐름’을 통해 짚어 줄 테니, 빈칸을 채우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자. 이후 ‘구조도’를 활용하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문의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야.

소설에서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주요 서술 대상의 변화 등에 따라 나뉘는데, 이때 장면을 적절히 끊어 가며 읽으면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스스로 장면을 끊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1주차에서는 장면이 나뉘는 부분마다 ‘장면끊기’를 제시해 지문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했으니, ‘장면끊기’의 빈칸을 채워 가면서 장면을 나누는 원칙을 배워보자.

지문에 대한 꼼꼼한 독해를 마쳤다면 1번 문제를 풀며 지문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하면 돼.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해설 책을 참고해 잘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을 확인하여 정리해 두자.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1 주요 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나'는 _____에게 대접받는 것을 미안해하네. 건우 어머니의 거친 _____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구나.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질철한 인사법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나'는 건우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건우 집에 대한 (상상/인식)이 변화되었어.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건우 집의 _____들을 보며 '나'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짐작하고 있네. 건우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_____한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야.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열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장면잡기 01 '나'가 _____을 방문하여 건우 어머니를 만난 뒤, 그녀의 부지런하고 의지적인 성격을 짐작하는 장면이야. 이후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건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나'가 건우의 공부방을 들여다보며 건우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어머니의 방일 테지만—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써어진 두툼한 책 한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입니다.”

“소설?”

“아입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건우는 선생님인 '나'에게 자신이 쓴 책을 보이는 것에 _____을 느끼나 봐.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퍼 주었다. 토박토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렇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장면잡기 02 '나'는 건우가 쓴 _____라는 책을 발견하고, 건우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해서 읽어. 여기까지가 종락 이전이니 장면을 한 번 끊어야겠지?

(종락)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에게 _____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건우 집을 방문했을 때 읽은 <섬 얘기>의 내용을 떠올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 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던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_____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땅을 두고 벌어진 부당한 일대에 대해 한탄해. 식민지 시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조마이섬 땅을 빼앗긴 역사에 윤춘삼 씨는 분노하지.

1905년—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때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나'는 '_____’을 계기로 농민들이 억울하게 동척과 일본인들에게 땅을 빼앗긴 역사를 떠올려.

“직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격격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들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유력자들에 의해 본래 땅의 주인이었던



_____과 무관하게 조마이섬 땅의 주인은 변화되어 온 거야. 자신들의 뿌리라도 같은 _____을 빼앗긴 것에 건우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체념/분노) 하고 있어.

장면표기 03 힘없는 _____사람들의 땅을 두고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 벌어지던 모습을 개탄하는 건우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그들이 지니고 있을 _____의 크기에 대해 생각하게 돼.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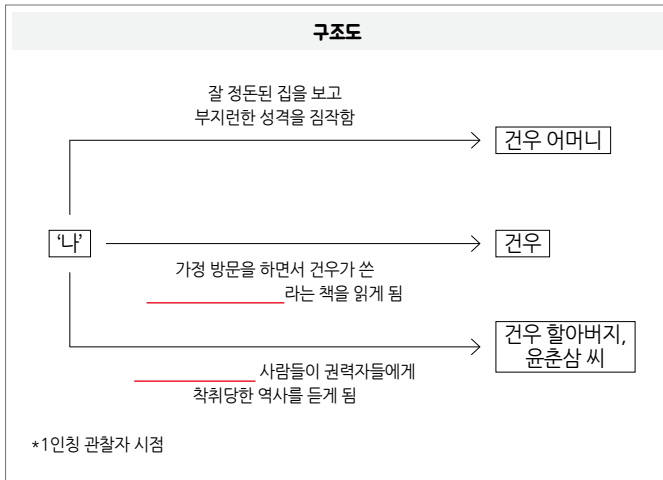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дук'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O X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O X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2주차 학습 안내



2주차에서도 1주차와 동일한 훈련이 이어질 거야. 등장인물들을 파악하고 ‘사과의 흐름’과 ‘장면 끊기’, ‘구조도’를 통해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뒤,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거지.

다만 2주차부터는 1번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거야. 즉 단순히 정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문의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삼아 선지의 정·오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이를 돕기 위해 2주차에 추가된 장치가 바로 ‘선지 판단의 공식’이야. ‘선지 판단의 공식’의 빈칸을 채우고 이를 고려해 각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를 통해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과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다시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정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1 주요 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복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아이들의 _____에 기분이 좋아진 민 노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민 노인의 겹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목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펍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민 노인은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이 의외로 _____하다고 느끼고 있어.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답답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장면표기 01 공연 연습이 끝나고 _____과 _____의 친구들이 막걸리 집에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첫 번째 장면으로 제시되었어.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복채를 잡을 수 없어.” 공연에서 _____을 맡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에서 _____을 대하는 민 노인의 애정을 엿볼 수 있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장면표기 02 공연이 열리던 날 _____ 민 노인과 성규의 대화가 두 번째 장면으로 제시되었어. 길이가 짧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장면을 끊어 읽어 주는 것이 좋아.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렘으로 흔들렸다. 오랜만에 _____을 치게 된 것에 대한 민 노인의 _____이 드러나고 있어.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_____는 민 노인이 복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나 봐. 하지만 민 노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공연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 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 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옅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민 노인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을 치는 자신의 모습에서 _____함과 _____감을 느꼈나 봐.

장면표기 03 공연을 하러 가면서 민 노인이 느끼는 감정이 제시되고 있어.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겐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복은 요긴한 대목에서 동등 울렸다. 찌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문혀 재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개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힘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민 노인은 _____에 자신을 맡기고 신명을 느끼며 공연에 몰입하고 있어.

장면표기 04 앞에서 느꼈던 부담감은 곧 사라지고 _____이 시작되자 자신감을 갖고 신명나게 공연에 몰입하는 _____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어.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킴**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며느리(송 여사)는 민 노인이 _____ 학교에 가서 _____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민 노인은 자신을 _____ 다루듯 하는 _____의 태도에 노여워하면서도, 성규 학교에서 복을 치고 온 일을 며느리가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나.”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며느리는 자신의 _____ 때문에 민 노인이 복을 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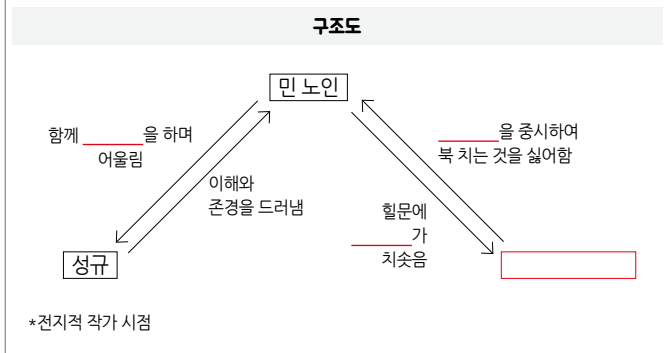
장면표기 05 다섯 번째 장면은 ‘_____’으로 시작해. 민 노인이 공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_____는 민 노인에게 성규의 학교에 가서 복을 치고 왔다고 물으며 질책하지. 이 장면에서는 민 노인과 며느리의 _____이 드러나고 있어.

- 최일남, 「흐르는 북」-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윗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복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O X
- ② 인물이 겪은 과거의 사건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 X

현대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연습을 끝내고 옮겨간 '막걸리 집'에서 민 노인은 '의외의 _____ 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펍 _____ 하다고 느낌

선지 →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O X

② **작품** '수십 명의 _____ 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_____ '에서 '민 노인의 복은 요긴한 대목에서 동동 울림

선지 →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O X

③ **작품** '춤판'에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종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_____ 은 까르르 웃음

선지 →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O X

④ **작품**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춤판'에서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_____ 도 없이 그의 _____ 는 툭 툭 꽃'하고, '그새 입에서는 열씨구! 소리도 _____ 에 흘러나옴

선지 →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복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O X

⑤ **작품** '집'으로 들어선 _____ 는 아이들과 어울려 '복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이냐며 민 노인을 질책함, 민 노인이 '이번에도 내가 닥들 _____ 꺾었냐.' 라고 하자, 며느리는 '아시니 다행이네요.'라고 함

선지 →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O X

2
주제

3주차 학습 안내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보기>는 지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즉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작품에 활용된 기법의 소개 등을 통해 제시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보기> 문제는 대체로 3점인 경우가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야. <보기>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진술이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비해 3주차에서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각 선지의 <보기> 속 근거, 작품 속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품-<보기>-선지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답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이 눈에 보일 거야. 3주차 훈련을 통해 <보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를 판단해 보자.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1 주요 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나'의 아버지는 _____으로 쓰러지신 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어. 그 때문에 유일한 _____이자 생존 이유였던 _____에 각별한 애정과 자존심을 갖고 있었지.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 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_____을 몰래 하나 집어먹은 '나'에게 아버지는 불같이 _____를 냈어. 캐러멜 갑 안에 캐러멜이 몇 개 들어 있었는지조차 알고 있을 정도로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대단하네.

—이런 민한 중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게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나,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에게 화를 낸 후 아버지는 _____하며 나머지 캐러멜 네 개를 서둘러 '나'의 _____에 쥐어 주었지.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서툰 _____에도 여전히 뽀로통한 채 캐러멜을 먹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어.

—널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 응?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장면포기 01** 이 장면에서는 '나'가 아버지의 구멍가게에서 _____을 몰래 먹은 일로 아버지께 혼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캐러멜을 몰래 먹은 사건이 끝나고, '나'가 아버지의 구멍가게 _____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시장통 도매상을 다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장면을 끊고 가자!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론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궁핍한 형편 때문에 번번이 아버지를 따라 _____으로 물건을 받으러 가야 했던 '나'는 반 친구나 여자 아이들을 마주하면 (분노를/수치스러움을) 느꼈지.

장면포기 02 중략 이후 '어느 날이었다.'라고 (시간/공간)이 바뀌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지? 여기에서 장면이 구분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이 장면에서는 '나'가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돕기 위해 _____으로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처지와 다른 반 친구들을 보며 수치심을 느끼고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된 모습이 나타나 있어.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도매상에서 _____를 두 병이나 모자라게 받아 온 것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 주변도 말 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소주 두 병을 마저 받아오지 못하면 장사를 해 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도매상인 수도상회의 _____에게 대신 보내게 된 거야.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_____때문에 직접 갈 수 없었던 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지지?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콧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 사탕만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험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소주 두 병을 적게 받아 온 사정을 헤아려 달라며 _____하는 '나'와 아버지를 향해 흑부리 영감은 실수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오히려 _____를 끊겠다고 협박하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이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 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_____으로 해 달라고 사정했던 아버지와는 거래를 끊어도 (이득/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흑부리 영감은 인정사정없었던 거야.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흑부리 영감의 험박성 경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두 병을 받아오지 못한 채 아버지는 (서러움/분노를) 느끼며 아들인 '나' 앞에서 _____을 보여. 아! 아버지……. 가난으로 인해 힘없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안타까워하지.

장면포기 03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소주 _____ 병을 적게 받아 온 일로 흑부리 영감에게 하소연을 해 보지만 협박성 경고만을 듣게 되고, 결국 자신의 _____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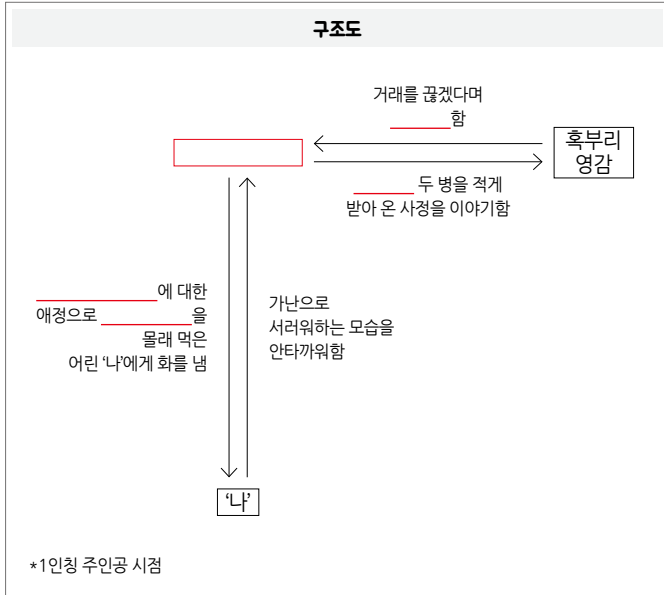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 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 ×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 ×

3 주자



현대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등장인물의 _____ 나 사건을 설명함. 독자는 서술자의 _____ 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됨

작품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_____ 와 자존심은 각별 했다.'

선지 →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O X

②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인물의 외양이나 _____ 만을 묘사함.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_____ 해석해야 함

작품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 내릴 때까지 _____ 천 채 서 있었다.'

선지 →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O X

③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가 _____ 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_____ 이나 행위를 묘사함. 독자는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함

작품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_____ '

선지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O X

④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가 유년 '나'로 시선을 _____ 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함.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_____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음

작품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_____ 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선지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O X

⑤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함. 유년 '나'의 _____ 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_____ 하게 됨

작품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_____ 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_____ 을 보이고 말했다.'

선지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O X

4주차 학습 안내

4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적용하여 조금 더 수준 높고, 실전적인 학습을 해볼 거야. 우선 4주차 부터는 ‘장면끊기’가 새로운 형태로 제시될 거야. 3주차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장면을 끊을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장면을 끊어 가면서 지문의 흐름을 이해해 보자. 이후 ‘장면끊기’ 표에 각 장면의 내용을 정리하면 돼. 장면을 구분하는 단서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지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확인하면 빈칸을 채우기 어렵지 않을 거야.

4주차에 수록된 1번 문제들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비교적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골랐어.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학습해 왔다면 2주차와 3주차에 활용된 ‘선지 판단의 공식’ 혹은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채워가며 선지의 정·오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와 관련해 해설 책의 ‘함정 피하기’에서 오답을 피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두었으니, 이를 통해 헛갈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자.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 1 주요 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 2 시간, 공간, 서술 대상이 바뀌는 곳을 찾아 직접 장면을 4개로 나누어 보세요.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었다. '나'는 아내의 의심이 _____ 해 말문이 막혔다고 하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아내야말로 자신을 _____ 하려던 것 아닌지 따지고 싶으나, 확인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삭이고 있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_____ 을 아내 방 문지방 밑에 놓고 몰래 집을 나와 버렸는데,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도 _____ 이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커피를 마시려던 '나'는 돈이 없어 머뭇거리며, _____ 사람처럼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이야.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_____ 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_____ 하는 '나'는 지난 스물여섯해의 삶을 _____ 하게 기억할 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나'는 _____ 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흐리멍덩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자신의 스물여섯해를 회고하다가, 스스로에게 인생에 대해 _____ 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 _____ 를 들여다보고 있어.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는 _____ 를 내려다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_____ 에 엉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행선지를 생각하던 '나'는 다시 _____ 가 '나'에게 먹인 _____ 이 아스피린인지 수면제인 아달린인지 의심해.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나'는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아내가 그럴 _____ 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아내의 의심이 사실이 _____ 라고 부정하는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어.

우리 부부는 속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나'는 우리 부부가 속명적으로 _____ 처럼 맞지 않는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오해를 풀지 않은 채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는 '나'에게 _____ 로 인식되는 세계와의 불화를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나'는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_____ 하고 있어.

이때 투—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_____ 소리가 울리는 순간 사람들과 주변의 모습에서 현란함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있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서 '나'는 _____ 가 돋았던 겨드랑이가 가려움을 느껴.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가 잊고 있던 _____ 이 번뜩이는 순간이야.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날개가 돌아 다시 _____ 고 외치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유와 비상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어.

- 이상, 「날개」 -

*미쓰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회탁의: 회색의 탁한.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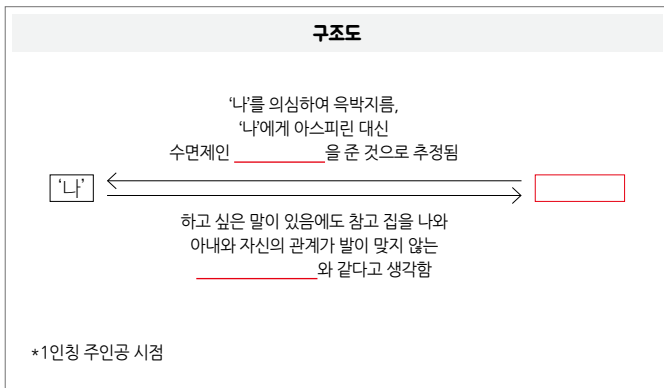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근거로 장면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 장면별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장면표기 01	'나'는 아내의 _____ 에 억울해하다가, _____ 에서 출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음
장면표기 02	'나'는 집을 나와 경성역 을 찾아가지만 _____ 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함
장면표기 03	'나'는 몇 시간 후 미쓰꼬시 옥상 에서 _____ 를 회고하면서 '_____'로 대표되는 세계와의 불화에 체념함
장면표기 04	'나'는 정오 사이렌 을 통해 무의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오 의 현란함을 바라보며 _____

2.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3.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
- ②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

현대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 주저앉아 자신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_____'하고 있음

선지 →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
- ②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_____한 생활', '피로와 _____'을 느낌. '발길'을 분간하기 어려워하며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라고 생각하던 '나'는 '_____ 소리를 듣고 '날개'가 다시 돌기를 바램

선지 →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
- ③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_____'를 내려다보며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허비적거리는 '피곤한 _____'과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_____'를 생각함

선지 →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
- ④

작품 '미쓰꼬시' 백화점은 매우 _____ 곳으로 그 '옥상'에서 '나'는 _____를 들여다보듯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_____한 생활', '피로와 공복'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낌

선지 →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
- ⑤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_____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는 '피곤한 생활'과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_____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하는 모습을 바라봄

선지 →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 ×

4
주제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1 다음 글을 읽고 주요 인물을 잘 파악했는지,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3 2015학년도 6월 모평AB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나는 **건우 어머니**에게 대접 받는 것을 미안해하네. 건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구나.'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법절에 새삼 생각을 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나는 건우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건우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 농사짓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건우 집의 안팎 광경들을 보며 '나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짐작하고 있네. 건우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친절할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야.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장면묘기 01 '나'가 건우네 집을 방문하여 건우 어머니를 만난 뒤, 그녀의 부지런하고 의지적인 성격을 짐작하는 장면이야. 이후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건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나'가 건우의 공부방을 들여다보며 건우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어머니의 방일 테지만—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써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입니다.”

“소설?”

“아입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건우는 선생님인 '나'에게 자신이 쓴 책을 보이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나 봐.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빼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포박포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속의 한 구절—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푹팍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장면묘기 02 '나'는 건우가 쓴 <섬 얘기>라는 책을 발견하고, 건우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해서 읽어. 여기까지가 종략 이전이니 장면을 한 번 끊어야겠지?

(종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에게 **조마이섬**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건우 집을 방문했을 때 읽은 <섬 얘기>의 내용을 떠올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 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던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건우 할아버지**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땅을 두고 벌어진 부당한 일에 대해 **한탄해**. 식민지 시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조마이섬 땅을 빼앗긴 역사에 **윤춘삼 씨**는 분노하지.

1905년—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나는 **을사 보호 조약**을 계기로 농민들이 억울하게 동척과 일본인들에게 땅을 빼앗긴 역사를 떠올려.

“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격격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켰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유력자들에 의해 본래 땅의 주인이었던 조마이섬 사람들과 무관하게 조마이섬 땅의 주인은 변화되어 온 거야. 자신들의 뿌리와도 같은 땅을 빼앗긴 것에 건우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분노하고 있어.

장면표기 03 힘없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땅을 두고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 벌어지던 모습을 개탄하는 건우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그들이 지니고 있을 원한의 크기에 대해 생각하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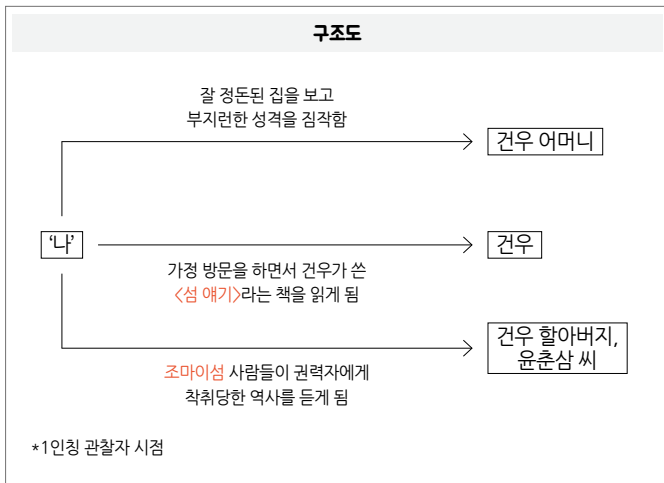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2 1~2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건우 어머니가 건우의 교육에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건우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고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때, 건우의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을 통해 건우네의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건우의 <섬 얘기>에 쓰여 있는 '책 읽은 소감'에는 선거 때 섬에 찾아오는 정당 사람과 그들의 손에 이끌려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표를 행사하게 되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건우가 정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O

• 묘사: 어떤 대상이나 인물의 외양, 행동, 내면 등을 그림을 보여 주듯 표현하는 것.

근거 '농사짓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길찬 장다리꽃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② O

•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음.

근거 '농사짓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현대소설 독해의 STEP 1

1 다음 글을 읽고 주요 인물을 잘 파악했는지,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3 2008학년도 9월 모평 - 이상, 「날개」

[A]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나'는 아내의 의심이 억울해 말문이 막혔다고 하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아내야말로 자신을 살해하려던 것 아닌지 따지고 싶으나, 확신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삭이고 있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면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아내 방 문지방 밑에 놓고 몰래 집을 나와 버렸는데,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네.

장면묘기 01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커피를 마시려던 '나'는 돈이 없어 머뭇거리며, **얼빠진 사람**처럼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이야.

장면묘기 02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미쓰꼬시 옥상**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하는 '나'는 지난 스물여섯해의 삶을 몽롱하게 기억할 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A] '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흐리멍덩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자신의 스물여섯해를 회고하다가, 스스로에게 인생에 대해 **욕심**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어.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는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줄에 엉켜 헤어나지 못하는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행선지를 생각하던 '나'는 다시 아내가 '나'에게 먹인 약이 아스피린인지 수면제인 아달린인지 의심해.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나'는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아내가 그럴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아내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어.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나'는 우리 부부가 숙명적으로 **절름발이**처럼 맞지 않는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오해를 풀지 않은 채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는 '나'에게 아내로 인식되는 세계와의 불화를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나'는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장면묘기 03

이때 두—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정오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순간 사람들과 주변의 모습에서 현란함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있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자 '나'는 날개가 돋았던 겨드랑이가 가려움을 느껴.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가 잊고 있던 **희망과 야심**이 번뜩이는 순간이야.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날개가 돌아 다시 날자고 외치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유와 비상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어.

장면묘기 04

- 이상, 「날개」 -

*미쓰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회탁의: 회색의 탁한.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현대소설 독해의 STEP 2

1 장면을 적절히 나누었는지, 장면별 내용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면표기 01 '나'는 아내의 의심에 억울해하다가, 집에서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음**

Tip 일반적으로 시간 혹은 공간에 변화가 있으면 장면을 끊을 수 있어. 아내와의 갈등 후 집을 나온 '나'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 지에 중점을 두어 다음 장면을 읽을 수 있어.

장면표기 02 '나'는 집을 나와 **경성역을** 찾아가지만 돈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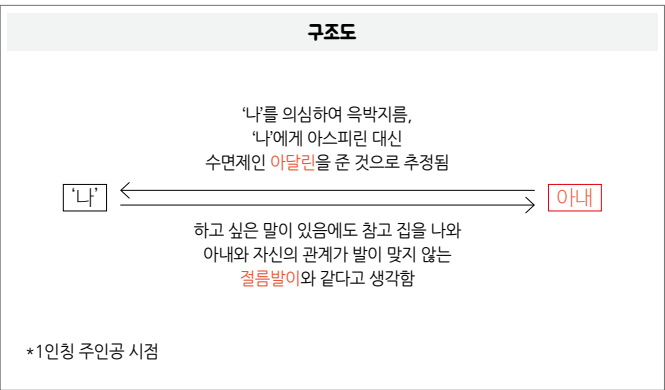
Tip 아내와 '나'의 갈등 상황이 있던 집에서 경성역으로 공간이 바뀐 장면이야. 이전 장면에서 내려놓고 온 돈이 없어 곤란해지는 '나'의 모습에서 장면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지? 이어서 다시 '몇 시간 후', '미쓰꼬시 옥상'으로 공간이 바뀌게 되니 여기서 장면을 끊자.

장면표기 03 '나'는 **몇 시간 후 미쓰꼬시 옥상**에서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면서 '아내'로 대표되는 세계와의 불화에 체념함

Tip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과거의 삶, 현재의 욕심 등을 떠올리고 있어. 현실을 불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인과성 없이 내면의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나'의 모습이 세 번째 장면의 주된 내용이야. 이처럼 비논리적으로 제시된 무의식에 대한 서술이 어떤 것을 계기로 분명한 의식 세계로 전환된다면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정오 사이렌'을 계기로 '나'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장면을 한 번 더 끊을 수 있지.

장면표기 04 '나'는 **정오 사이렌**을 통해 무의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오**의 현란함을 바라보며 희망과 야심을 담아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라고 외침

2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3 1~2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정답률 68%

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피곤한 생활', '피로와 공복' 등을 느낀다. 그리고 미쓰꼬시 옥상에서 내려온 후에도 '나'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미쓰꼬시 옥상을 통해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정오 사이렌'을 들은 이후이다.

함정 피하기

아내와의 갈등 후 거리를 떠돌던 '나'가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 지나 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왔으며, 이곳에서 자신의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면서 '회택의 거리'의 '피곤한 생활'을 바라보다가 '나서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해매고 있다.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미쓰꼬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 사이렌'이므로 '미쓰꼬시 옥상'이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라고 했으므로, 미쓰꼬시 옥상은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매우 높은 건물인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거리 전체를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미쓰꼬시 옥상은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나'는 '회택의 거리'를 '피곤한 생활'이 '허비적거'리고, '보이지 않는 끈적 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지지들을 못'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볼 때 느낀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미쓰꼬시 옥상은 '나'가 '회택의 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하는 부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그 '회택의 거리'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고 있으므로, 미쓰꼬시 옥상이 '회택의 거리'를 체념의 공간으로도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 독백: 혼자서 중얼거림. 또는 그런 대사.

근거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등

② ✕

근거 윗글은 '나'의 주관적인 내면 의식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객관적인 진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음.

현대소설 독해의 STEP 3

1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 주저앉아 자신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고 있음
선지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 ②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피곤한 생활', '피로와 공복'을 느낌. '발길'을 분간하기 어려워 하며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라고 생각하던 '나'는 '정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날개'가 다시 돌기를 바람
선지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 ③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허비적거리는 '피곤한 생활'과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생각함
선지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 ④

작품	'미쓰꼬시' 백화점은 매우 높은 곳으로 그 '옥상'에서 '나'는 '금붕어'를 들여다보듯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피곤한 생활', '피로와 공복'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낌
선지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 ⑤

작품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는 '피곤한 생활'과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하는 모습을 바라봄
선지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